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7. 15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행복주택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승범, 주무관 신동희 • 044-201-4514, 4515	
보도 일시	2016년 7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인터넷은 7. 17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민 10명 중 8명은 행복주택 입주(권유)할 의향 있어!

- 7.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, 고양, 화성 등에서 1천9백호 입주자 모집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 6.20일부터 6.24일까지 전국 성인(만19세에서 59세) 1천명 대상으로 진행한 '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' 결과 국민 87.2%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.
- 또한, 행복주택에 입주(권유)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79.3%였으며, 특히, 행복주택을 알고 있는 국민의 입주(권유) 의향은 87.8%로 높았다.
- 아울러, 행복주택이 청년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.5%로, 작년말 조사결과(65.1%) 보다 11.4%p 높아졌다.



□ 또한, ‘**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***’를 지난 4월 도입한 결과 일일 6백여명씩 신청하여 100여일 만에 신청인원이 **7만명**을 넘어섰다.

* 입주희망지역과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기에 맞춰 문자로 청약정보 전송

○ 신청자의 現 거주지는 서울 2만8천명, 경기도 2만명, 인천 4천명 등 수도권이 **74%**, 부산 3천명, 대구 2천4명 등 지방이 **26%** 이다.

○ 입주희망지역은 서울 3만3천명, 경기도 1만6천명 등 수도권이 **74%**, 대구 3천명, 부산 2천명 등 지방이 **26%** 이다.

○ 신청자 연령은 20대가 3만4천명, 30대가 2만7천명으로 **2030세대가 87%**, 40대 이상이 13%이다.

○ 국토교통부 관계자는, “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 신청자수가 연말이면 15만명, ‘17년말이면 35만명 이상 될 것”으로 보았다.

□ 아울러,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과 입주자격 자가진단 및 입주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**행복주택 블로그·행복주택 월간 조회건수**가 작년 30만건에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4월부터는 **100만건** 수준으로 증가 하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관심이 급증하고 있다.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올해 **행복주택 1만여호**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서울가좌 등에서 1천6백여호 모집에 이어 7.14일부터 18일까지 **서울마천3(148호)**, **고양삼송(832호)**, **화성동탄2(608호)**, **충추첨단산단(295호)**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.

○ 아울러,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7천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김승범 사무관(☎044-201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